

金庸小說 中國 대륙 진출의 의미 고찰

趙洪善*

〈목 차〉

- I. 序論
 - II. 中國現代文學界에 끼친 영향
 - 1. 中國現代文學史 다시 쓰기와 金庸의 소설
 - 2. 문학 비평에 대한 반성
 - 3. 俗文學의 가치 재발견 — 雙翼文學을 넘어서
 - III. 대중문화의 시대 개막의 상징
 - 1. 무협소설과 1980, 90년대 대륙
 - 2. 대중문화의 헤게모니 이론으로 본 金庸 소설
 - IV. 결론 — 문학혁명의 실제 의미
-

I. 序論

金庸의 데뷔작 《書劍恩仇錄》이 홍콩에서 발표된 1955년 이후, 그의 거의 모든 작품들은 홍콩 대만 태국 등에서 1960, 7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중국 대륙에서 武俠小說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1년 梁羽生의 《萍蹤俠影》이 출판되면서 무협소설 열풍이 일기 시작한 이래 그 정점에 金庸의 무협 소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金庸이 중국대륙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부터였다. 1991년 金庸 연구서 《金庸小說賞析》이 출판되었고, 1994년 三聯書店에서 《金庸作品集》이 출판되었다. 동년, 王一川에 의해 金庸은 중국현대문학사에서 魯迅·沈從文·巴金에 이어 네 번째로 주요한 작가로 추대되었으며¹⁾, 嚴家炎은 北京大學 中文科에 ‘金庸武俠小說研究’라는 강좌를 개

* 濟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1) 《二十世紀中國文學大師文庫·小說卷》〈序文〉. 이 글은 金庸의 소설에 관한 첫 번째

설했다. 1996년 《中國社會科學》과 《文學評論》에 金庸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1997년《通俗文學評論》第一期에는 金庸研究 특집이 실리기도 했다.

金庸에 대한 평가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아래 嚴家炎의 치사일 것이다.

金庸 소설의 등장은 중국 신문학과 서방 근대문학의 경험을 응용하여 속문학을 개조하려했던 노력이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五四’文學革命으로 소설이 무시만 당하던 ‘閑書’에서 신성한 문학의 전당에 들 수 있었다면, 金庸의 작품으로 무협 소설은 문학이라는 궁전에 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 하나의 문학 혁명(밑줄 인용자)이다. 즉 金庸의 소설은 20세기 중화문화의 기적으로서 문학사에서 빛나는 한 장으로 남게 될 소리 없이 진행 중인 혁명(밑줄 인용자)인 것이다.(金庸小說的出現, 標志著運用中國新文學和西方近代文學的經驗來改造通俗文學的努力獲得了巨大的成功. 如果說‘五四’文學革命使小說由受人輕視的‘閑書’而登上神聖的文學殿堂, 那么, 金庸的藝術實踐又使近代武俠小說進入文學的宮殿. 這是另一場文學革命, 是一場悄悄地進行著的革命, 金庸小說作為二十世紀中華文化的一個奇跡, 自當成爲文學史上光彩的篇章。)2)

嚴家炎은 위의 글에서 金庸의 소설을 ‘五四’文學革命에 비견되는 ‘또 하나의 문학혁명’이라고 추켜세웠다. ‘五四’文學革命이 소설을 대아지당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면, 金庸의 소설은 무협소설을 ‘文學의 宮殿’에, 즉 俗文學에 머물러 있던 무협소설을 雅文學의 위치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역시 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嚴家炎은 이 金庸에 의한文學革命에 대해 수 년 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다. 그가 이때 설명한 金庸 소설의 혁명은 ‘전통무협관 수정(對傳統武俠觀念的改造)’, ‘전통 창작 방법 혁신(對傳統創作方法的革新)’, ‘풍부한 문화적 함의와 광범위한 예술적 운용(豐厚的文化含量和廣泛的藝術借鑒)’ 등으로서 위의 논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뿐, 방향이나 근본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없다.3)

논쟁의 원인이 되었다. 논쟁에 관해서는 丁進, 〈中國大陸金庸研究述評(1985~2003)〉: 《江西社會科學》2004.5, 陳志明, 《金庸論爭實錄(上、下)》(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9) 참조.

2) 嚴家炎 〈一場悄悄的文學革命—在查良鏞獲北京大學名譽教授儀式上的賀詞〉: 《通俗文學評論》, 1997年1期, ‘金庸專號’.

3) 〈再談金庸小說的文學革命〉: 《金庸小說增論稿(增訂版)》(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234-242쪽 참조.

이 평가에 대한 의문점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분명 金庸의 소설은 문학혁명이라 불릴만하다. 그러나 위 嚴家炎의 평가는 金庸 소설의 문학적 가치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느껴진다. 문학 외적인 큰 틀에서 金庸 소설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와는 다른 면이 보일 듯하다. 즉 문학사라는 전체적인 틀과 金庸의 소설이 받아들여졌던 당시 중국 대륙의 대중문화라는 틀에서 그 혁명의 의미를 살펴보면 위 嚴家炎의 평가가 보완되면서 金庸 소설의 의의가 좀 더 확충되리라 생각한다.

II. 中國現代文學界에 끼친 영향

金庸의 소설이 대륙에 소개된 이래 그 작품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출판된 《金庸論爭實錄(上·下)》⁴⁾, 《金庸論爭實錄續編(上·下)》⁵⁾에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30여 차례의 논쟁을 다룬 글들이 실려 있다. 그 분야를 보면 문학, 교육, 언론, 학술, 영상문화, 상업, 오락 등 문화계 전반에 걸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끊이지 않는 논쟁은 수 억 명이 넘을 거라는 그의 작품의 독자와 함께 그의 위치를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분야의 논쟁 중에서 金庸의 소설에 관한 논쟁은 주로 그의 작품의 雅俗에 관한 논쟁이었다. 기이한 것은 金庸의 소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려는 논자들은 결국은 기존의 문학사와 문학비평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문학사 다시 쓰기의 추동력 중 하나, 둘째 비평 분야에서 金庸 소설에 관한 비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비평 풍토 반성, 셋째 속문학의 가치 재발견 등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이들 세 분야의 반성과 재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중국 현대문학의 지나친 정치화로 인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말로 중국현대문학계에 金庸의 소설이 일으킨 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대표적인 논문들을 소개해본다.

4) 陳志明(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9).

5) 陳志明(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9).

1. 中國現代文學史 다시 쓰기와 金庸의 소설

金庸의 소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려는 논자들의 글에서 중국현대문학사라는 용어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二十世紀中國文學’이라는 용어, 즉 ‘문학사 다시 쓰기(重寫文學史)’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이것이 문학사 다시 쓰기, 즉 기존의 정치적 기준에 따라 문학 작품과 제 현상을 재단했던 획일적인 태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과 金庸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글로는 錢理群의 〈金庸的出現引起的文學史思考〉, 陳墨의 〈金庸小說與二十世紀中國文學〉⁶⁾, 劉再復의 〈金庸小說在二十世紀中國文學史上的地位〉, 陳平原의 〈超越“雅俗”—金庸的成功及武俠小說的出路〉⁷⁾ 등을 들 수 있다.

錢理群은 위의 글에서 金庸의 소설로 인해 기존의 문학사 서술에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동시에 통속소설의 문학사적 지위 역시 재고해야할 여지가 생기면서 이십세기 중국문학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金庸과 魯迅은 공통적으로 ‘현대화’라는 역사적인 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나 魯迅이 사상계몽이라는 면에서 현대화라는 임무를 수행했다면, 金庸은 문학 시장의 수요라는 면에서 현대화를 실행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차이가 생겨났을 뿐 부단한 혁신을 시도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陳墨은 金庸의 무협소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와 의의에 대한 연구 자체가 이미 이십세기 중국문학사의 틀을 짜는데에 관련되었다고 썼다.

陳平原은 金庸의 성공으로 인해 이십세기 말 중국문단과 학계에 커다란 자극이 되었으며, 이숙논쟁, 대/소 전통의 차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영역 등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했다. 또한 魯迅·巴金·茅盾 등이 중국어로 외국 소설을 썼다는 평은 너무 가혹하긴 하나 신문학가들이 사상계몽과 문화혁신이라는 전체적인 틀에 치중하느라 일반 대중들의 취향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고 했다.

劉再復은 金庸 소설의 의의를 정치로부터의 독립에서 찾는다. 그가 보기에 金庸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현대문학사는 온전치 못한 문학사이

6) 이상 《通俗文學評論》, 1998년 제3기.

7) 이상 《當代作家評論》, 1998년 第5期.

다. 그는 그 근거로 二十世紀文學史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그가 보기에 二十世紀文學史에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문학이 정치의 시너로 전락함으로써 문학에 자유정신을 대신하여 투쟁과 피비린내 가득한 문학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庸의 창작은 이데올로기화한 신문학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대륙의 작가들이 절필하거나 정치적인 인물로 변해갈 때 金庸은 홍콩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문학의 자유정신을 지켜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사회-역사라는 큰 틀을 묘사할 때 현대적인 의식으로 협애한 '민족-국가'라는 한계를 돌파함으로써 漢族主義를 해소하고 당시 이미 통용되던 '중국인'이라는 정의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金庸의 소설은 전 세계 중화권 사람들의 공통된 언어이자 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二十世紀文學史에서 이루었다는 문체 혁명이 실은 커다란 공헌이라 할 수 없는 서구화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신체 백화문은 사회의 대중과 여전히 거리가 있었으므로. 2, 30년대 호적, 노신 정진탁 등의 민요 제창, 3, 40년대의 대중 형식 모색, 延安文學 등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으나 이는 중상층 지식인들의 대중에 대한 침입을 의미할 뿐, 사회대중이 스스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어진 新文藝腔, 黨八股腔, 社論腔 등 신체백화문은 시종 '수입품'과 '고고한 사회적 신분'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민족언어 건설이라는 면에서 신체백화문의 의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金庸 소설의 백화문은 그 언어 전통(宋元代로부터 전해진 백화문)이 사회 대중에 근접해 있다는 특징을 계승하고 조기의 감정적이고 속된 결점을 고쳐 백화문의 표현력이 풍부해졌으며 이를 통해 현대백화문학의 보고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체백화문이 신문학작가들이 낸 답안이라면 金庸 소설의 백화문은 金庸이 제출한 답안이며, 양자의 우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金庸 소설의 백화문에 신체백화문보다 훨씬 많은 민족문화의 가치가 함유되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상 문학사 다시 쓰기를 주장했던 논자들은 기존의 중국현대문학사 기술과 그 기술의 근거가 되었던 정치적 기준이 모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그 대표적인 근거로 金庸과 그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문학 비평에 대한 반성

趙科印의 <“權威批評話語”在通俗文學批評中的尷尬>⁸⁾라는 글을 문학비평에 대한 반성의 대표적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먼저 “권위적인 비평 담론(權威批評話語)”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권위적인 비평 담론’이란 중국문학 비평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채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변형된 문학비평언어를 특별히 지칭한다. 권위적인 비평 담론은 문학작품에 대해 의도적인 곡해를 함으로써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本文提到的“權威批評話語”，特指我國文學批評中依附於一定政治意識形態，並被異化為政治意識形態工具的文學批評話語，它往往對文學作品作出蓄意的曲解，以滿足特定政治意識形態對文學的需求。)9)

심지어 그는 고대로부터 現當代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문학비평의 공통점으로 ‘모두 이데올로기에 기생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종속물이 된’ 점을 들기도 한다.

그가 보기에 金庸의 소설에 관한 거의 모든 비평은 이 권위적인 비평 담론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문학비평과 사회집단의 비평의식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그가 분류한 이 비평담론의 유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통속문학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분명 사상성이 아니라 오락성임에도 사상성을 기준으로 金庸의 소설을 평가하는 비평들이다. 이들 비평에서 자주 보이는 ‘主旋律’이나 ‘사상내용’이라는 용어들은 권위적인 비평 담론이라는 껍데기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비평이 주관적이고 비학문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통속문학(金庸이 대표적인)에 대해 취하는 비평 방식으로서, 金庸의 작품이 아니라 무협소설에 대한 자신들의 선입견에 기반해서 전개하는 비평들이다. 그는 이 비평들은 무엇보다 金庸의 소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큼 진지하게 그의 작품을 읽지도 않고 이루어지는 비평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들 비평은 “권위적인 비평 담론”이 이미 권위를 잃었다는 사실과 통속문학이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8) 《甘肅社會科學》，2006年第5期.

9) <“權威批評話語”在通俗文學批評中的尷尬>

있는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金庸을 미화하는 비평들을 든다. 예를 들면 金庸을 ‘文學革命家’라고 한다거나 魯迅과 비교하는 글, 또는 金庸의 작품을 經典化하는 시도, 金庸을 魯迅, 沈從文, 巴金 다음의 위치에 놓는 비평 등이다. 이들 비평에 대한 그의 평가는 직접 음미해볼만하다.

통속문학을 혁명화 혹은 경전화하는 문학비평들은 겉으로는 통속문학을 긍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위적인 비평 담론이 대중의 심미관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한 후 대중의 심미의식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시도한 것이다. 그들은 통속문학에 혁명성을 부여하여 통속문학을 자신들의 언어범주 안으로 끌어들이고 후 통속문학 제거라는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這種把通俗文學革命化經典化的文學批評, 表面上是對通俗文學的肯定, 實質上不過是在現實語境中, “權威批評話語”在喪失了對大眾審美的決定權之後, 對大眾審美意識的一次圖謀, 他們試圖通過賦予通俗文學革命性, 把通俗文學納入自己的話語範圍, 從而達到清除通俗文學的目的。)¹⁰⁾

위의 견해는 필자가 金庸의 소설에 관한 논문들을 볼 때 들었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들은 속문학에 속하는 金庸의 소설을 雅文學의 잣대로 평가함으로써 金庸의 소설을 아문학의 범주로 흡수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꺼져가는 아문학의 생명을 연장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趙科印의 이 글은 金庸과 그의 작품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평을 통렬히 비판한 것이자 자기반성, 항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속문학이 이미 중요한 장르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점도 돋보이며, 문학비평의 원칙에 대한 반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자 역시 지식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저자 논지의 출발점이 여전히 지식인의 것이며, 金庸과 그의 작품의 의미, 비평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 위의 글.

3. 俗文學의 가치 재발견 — 雙翼文學을 넘어서

아래에 인용된 範伯群의 글을 보면 최근 속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것 역시 金庸의 소설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연상이 절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중국문학사에서 통속문학에 대해 취해진 태도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해 보자. 고대에는 대체로 ‘전반적인 멸시’와 ‘부분적인 승격’이라는 대책이 쓰였다. 어떤 통속문학 작품이 이미 대대로 전해질 정도로 영향력이 큰 작품이 되었다고 느껴지면 이문학에서도 이들 작품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됨에 따라 일종의 ‘귀순’과 비슷한 방식인 ‘회유’라는 수단을 채택했다. 즉 이들을 아문학 범주에 포함시켜서 안정을 취한 것이다. 통속문학이 아니라 원래부터 경전인 듯한 고전 명저들, 예를 들면 《三國演義》·《水滸傳》·《西遊記》 같은 작품들은 몇 대 기서라는 이름으로 그 작품들의 속문학적인 본질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비슷한 부류의 속문학 작품들은 대량으로 문학사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下面我們就中國文學史中對通俗文學所採取的態度作一簡略分析，在古代，一般是採取了“總體蔑視”與“分體升格”的對策。當他們覺得有些俗文學已成為影響廣遠的傳世之作時，雅文學對他們也到了無法不予正視的地步，於是往往採用‘懷柔’手段，一種類似‘招安’的策略：招來並使之安寧。似乎它們本來就是經典，而不是屬於通俗文學的古典名著，如《三國演義》、《水滸傳》、《西遊記》；或者用幾大奇書的排名沖淡它們的俗文學本質；而大量的同類的俗文學作品卻仍被排斥在文學史研究的客體之外。)¹¹⁾

왜냐하면 위의 글에서 예로 언급된 《三國演義》·《水滸傳》·《西遊記》를 대신해서 金庸의 작품을 집어넣으면 위의 글은 中國 現代文學史에서 金庸의 소설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앞서 인용했던 趙科印이 밝힌 ‘통속문학을 혁명화 경전화하는 문학비평’의 의도와 일맥상통하기도 하다.

《三國演義》·《水滸傳》·《西遊記》 등과 같은 고대의 속문학 작품들이 ‘통속문학이 아니라 원래부터 경전인 듯한 고전 명저들’의 대우를 받으면서 ‘회유’의 대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金庸의 소설은 이미 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의 작품이 대륙에서 광범위한 독자의 지지를 받은 끝에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은 1990년대와 출판된 시점인 1950년대를 비교해본다면 그 기간이 너무나

11) 《通俗文學十五講》(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5-6쪽.

도 짧아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이문학이라고 분류되는 이십세기 중국문학사의 작품 중 1-200년 후에도 여전히 이문학으로 분류되고 경전으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얼마나 될까하는 것이다. 劉再復이 앞선 글에서 주장한 대로 이제 문제가 있는 진영은 이문학 진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쌍익문학사'라는 개념 역시 같은 저서에서 언급된다. 範伯群이 밝히고 있는 二十世紀와 二十一世紀의 시기별로 달라지는 통속문학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 통속문학의 생존권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의 주제가 되었다. 당시 몇몇 작가들은 이문학과 속문학을 문학이라는 모체의 양 날개로 비유하면서 '나머지 날개 하나를 되찾아' 문학이라는 모체가 양날개를 활짝 펴서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문학사 연구자들이 20세기 80년대에야 속문학의 가치를 초보적으로나마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對中國通俗文學的生存權的討論, 直至20世紀80年代, 才提到了議事日程上來。當時有些文學工作者, 將雅文學與俗文學比作文學母體的兩翼, 提出要“找回另一只翅膀”, 以使文學母體展雙翼而翱翔。直到20世紀80年代, 我們的文學史工作者才開始對通俗文學的價值做出了初步的肯定。)¹²⁾

중국 대륙 신시기의 통속 소설은 외래 수입품의 자극과 각색 하에 급속히 회복되었다. 80년대에 이미 시장의 규모가 형성되었고 90년대에는 '엄숙문학'이 통속 문학에 의존하게 할 정도의 압력을 행사했다. (中國內地新時期的通俗小說在舶來品的刺激和潤澤下, 很快恢復起步, 80年代已形成市場規模, 進入90年代, 更對“嚴肅文學”造成壓迫, 逼使高雅、嚴肅文學向通俗靠攏。)¹³⁾

21세기에 접어들자 중국 통속소설의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공급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통속소설의 일부 기능은 티브이 연속극으로 대체되었고 나머지 역시 '순문학'이 가로채갔다. 인터넷에서 왕성한 아속 경계가 불분명한 대량의 소설들을 보면 전통 통속 소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현재 통속문학에 닥친 문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각이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즉 간혹 '주류언어'의 식객 노릇을 영광으로 여기고 자신이 이 시대의 주류임을 모

12) 《通俗文學十五講》, 5-6쪽.

13) 《通俗文學十五講》, 342쪽.

르는 것이다. (進入21世紀, 中國通俗小說的市場需求空前加大, 但創作供給卻並不樂觀。通俗小說的一部分功能被電視連續劇所取代, 而另一部分又由“純文學”所代庖。網絡上興起的大量介於雅俗之間的小說, 也令人對傳統的通俗小說產生反思。當今通俗文學所面臨的問題是, 角色意識尚不夠自覺, 有時以充當“主流話語”的幫閑爲榮, 而不知自己是這個時代的主流。¹⁴⁾

1980년대에 속문학 진영의 목표가 문학의 한 쪽 날개로서 속문학의 지위를 회복하여 쌍익문학을 형성하려 한 것이었다면 90년대에는 속문학의 우세를, 현재는 그 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속문학이 시대의 주류이며 그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문학 진영의 자신감 회복과 그에 기반한 미래의 방향 설정 등은 모두金庸의 소설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1990년대를 지칭하는 명칭들 — 無名文學, 多聲樂의 시대 —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문학의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90년대 문학 현상 중 王朔 현상을 설명할 때 언급되는 ‘문학의 위치이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¹⁵⁾

Ⅲ. 대중문화의 시대 개막의 상징

1. 무협소설과 1980, 90년대 대륙

嚴家炎的《金庸小說論稿》는金庸 소설에 대한 연구저작 중에서 가장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회한하게도 그 목차만 봐도 작품의 내용과의 연관성이 떠오르면서 연구서의 내용이 이해되는 듯하다.¹⁶⁾ 그러나 아쉬운 것

14) 《通俗文學十五講》, 342쪽.

15) 張法은 〈90년대 중국문예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제기〉에서 이를 ‘전체 의식대내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문학이 주변적 위치로 이동하게 된 것을 의미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수 편역 《중국 신시기문학 입문》(서울, 토마토, 1995), 236쪽 참조.

16) 참고로 목차는 다음과 같다. 「序言, 金庸熱: 一種奇異的閱讀現象, 文化生態平衡與武俠小說命運, 豪氣幹雲鑄俠魂—說金庸筆下的“義”, 變幻百端筆生花—說金庸筆下的“武”, 生死以之癡千態—說金庸筆下的“情”, 論金庸小說的現代精神, 論金庸小說的情節藝術, 論金庸小說的生活化趨向, 論金庸小說的影劇式技巧, 金庸小說與傳統文化, 金庸的“內功”: 新文學根底, 文學的雅俗對峙與金庸的歷史地位」

은 제1장에서 金庸熱에 대해 「수많은 독자-지속되는 시기-광범위한 지역-폭넓은 독자층-정치적인 이견 초월-중국 대륙 최초의 독자는 누구-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讀者數以億計-持續時間之長-覆蓋地域之廣-讀者文化跨度之大-超乎政治分歧之上-中國大陸最早的讀者可能是誰-一系列難以探解之迷)」이라는 소제목으로 여러 분야의 현상을 나열하고 있으나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한계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에 해당되는 아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20세기는 본래 과학이 흥했던 시기이다. 중국 신문학 역시 ‘五四’ 이래 80년간의 발전을 거쳐 절대적인 우세를 점한 지 오래다. 그런데 바로 이 세기의 후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쓰인 金庸의 소설이 출현했다는 점, 게다가 이처럼 오랜 동안 문단을 풍미하고 있다는 점, 그 자체 또한 흥미로운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世紀本是科學昌盛的世紀;中國新文學經過“五四”之後八十年的發展,也早已取得了絕對的優勢.恰恰在這個世紀的後半期,金庸以傳統形式寫成的武俠小說出現了,並且如此長久地風靡不衰,這本身又是一個令人感興趣的更大的迷。)¹⁷⁾

위의 인용문을 보면 嚴家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金庸 소설의 ‘전통적인’ 형식이라는 의혹이 지워지지 않는다. ‘金庸熱’이라는 章이 ‘수많은 독자-지속되는 시기-광범위한 지역-폭넓은 독자층-정치적인 이견 초월’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 봐도 현상 나열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쓰인 金庸의 소설이 출현했다는 점, 게다가 이처럼 오랜 동안 문단을 풍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듯 그 형식과 지속되는 기간에 치중한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왜 20세기 후반기인가, 왜 무협소설인가라고 질문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역시 권위비평언어와 金庸 무협소설의 부조화가 증명되는 부분이다. 작품은 무수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쓰였는데, 연구서는 일부 지식인의 사고와 언어로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그 부조화는 당연할 것이다. 대중소설의 긍정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분석해보지 않고, 대중소설을 각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감상할 수 있는 雅俗共賞의 경지로 끌어올리려고만 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전체 목차에 권위비평언어로 아문학 작품을 비평할 때의 습관이 그대로 답습

17) 《金庸小說論稿》, 13쪽.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嚴家炎은 金庸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문화수준에서 작품을 들여다보고만 있을 뿐 작품의 외부, 金庸熱이 발생 지속되는 이유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까지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金庸熱은 단지 金庸의 필력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金庸熱은 왜 홍콩이나 동남아와는 20여년의 시차를 두고서야 대륙에서 일었는가. 물론 ‘반우파 투쟁’과 ‘문화대혁명’ 같은 5,60년대 대륙의 지나친 정치적 경색과 편향을 그 이유로 쉬이 떠올릴 수 있으나, ‘수많은 독자-지속되는 시기-광범위한 지역-폭넓은 독자층-정치적인 이견 초월’이라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답으로는 당연히 그의 필력 외의 요소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답을 무협소설의 특징과 20세기 후반기 중국대륙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연관 지어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무협소설 연구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趙城勉은 한국의 무협소설이 유행했던 시기와 그 시기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협지가 대중사회에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기는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1960년 4.19 혁명)과 역사적 절망(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이 함께 교차하던 정치적 혼란기였고, 산업화와 개발의 불을 타고 이제까지 지켜져 왔던 삶의 원칙과 질서들 그리고 재래의 가치와 규범이 더 이상 대중들에게 삶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였다.

.....즉 머리는 전통사회에 있으나 몸은 산업화된 현실에 처해 있는 분열과 혼란의, 새로운 희망과 절망이 중첩되어 있는 혼돈의 시대가 바로 무협물의 태동기였던 것이다. 이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알몸으로 내던져진 대중들에게 아마도 무협은 하나의 위안이었고, 경이였을 것이다. “현실 생활 속에서 박해를 받고도 호소할 길이 없을 때, 부당한 폭력을 제거하고 선량한 하층민들을 위안해 주는 협사들의” 이야기. 그것은 비록 상상의 세계 속에서만 벌어지는 가공의 이야기요 말쑥한 거짓말이지만, 자신들을 대신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온갖 부조리와 악을 일소해 버리는 통쾌한 것이기도 했다.¹⁸⁾

위의 인용문에는 먼저 무협소설이 대중들에게 급속히 환영 받는 시대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다.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과 ‘역사적 절망’이 교차되던 ‘정치적 혼란기’라는 시대적 배경은 金庸의 소설이 유행했던 20세기 후반기 즉 1980, 90년대 대

18) 《대중문학과 경전에 대한 반역》(서울, 소명출판사, 2002), 167쪽.

륙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과, 곧 이어 붙어닥친 ‘정신오염 척결’, ‘자산계급 민주화 비판’, ‘천안문 사태’, ‘南巡講話’등 1980, 90년대 중국은 그야말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중국 최초의 록앤롤 가수 崔健의 〈一無所有〉와 賈平凹의 《廢都》는 이 시기 혼란스러움에 대한 예술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一無所有〉의 가사 「난 계속 물었지 /언제 나와 함께 갈 거냐고/넌 항상 웃기만 했어/내게 아무 것도 없다고/나의 꿈을 줄게/그리고 나의 자유도/그래도 넌 웃기만 하는구나/내게 아무 것도 없다고」¹⁹⁾에서 보이는 간극은 얼마나 큰 것인가. 상대에게 줄 것이라곤 자신의 전부인 꿈과 자유밖에 없는 사람이 개혁개방 이후 꿈과 자유가 아무 것도 아닌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노랫말은 당시 가치관의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다. 賈平凹의 《廢都》는 아문학 작가가 속문학 작품 혹은 아속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작품을 썼다는 점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6·4 천안문 사태 이후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진 지식인이 스스로 타락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자신을 멸망시키는 자기 포기 선언서이자, 유서와 같은 것이다. 바로 ‘재래의 가치와 규범이 더 이상 대중들에게 삶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임을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예술의 한 장르라 할 수 있는 로큰롤이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었다면, 아문학의 지식인 작가는 행복과 포기를 선언 하고 미는 것이다. 이 자리를 대신한 것이 무협소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알몸으로 내던져진 대중들에게 ‘위안’이었고, ‘경이’였을 무협으로 金庸의 소설이 독자들에게 다가간 것이다.

다른 한편, 대중예술 이론에서는 아문학 진영이 속문학을 비판하는 두 근거, 즉 ‘현실도피와 오락 추구’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현실도피나 오락이라는 비난의 근거가 단지 ‘고급문학의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열등한’이라는 소극적인 비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내 생각에 이제 현실

19) 「我曾經問個不休 / 你何時跟我走 / 可你卻總是笑我 / 一無所有 / 我要給你我的追求 / 還有我的自由 / 可你卻總是笑我 / 一無所有」 〈一無所有〉는 陳思和·李平이 편집한 《二十世紀中國文學精品—當代文學100篇》(上海, 學林出版社, 1999)에 이 시기를 대표하는 詩 중 한 편으로 선정되어 있다.

도피나 오락이라는 말 속에 감춰 있는 적극적인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 조명을 던져볼 때가 된 것 같다. 삶의 총체적 방식으로서 도피주의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상상력이 동원되어 어떤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속에 일시적으로 침잠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자체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 인간성의 한 부분이며 때로는 그것대로 가치가 있다.²⁰⁾

카웰티는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평가 받던 ‘현실도피와 오락 추구’를 ‘우리 인간성의 한 부분이며 때로는 그것대로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인 요소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도피나 오락추구를 정신마취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역시 문학의 정치적인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무협 소설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무협소설이나 정치의 시녀에서 벗어나 문학 원래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金庸 소설의 혁명성이 있다고 본다. 金庸의 소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의 시녀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문학 자체로서의 문학을 요구하고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또한 대중 소설 혹은 속문학이 독자에게 거짓 위안과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케 하거나 현실의 모순을 잊게 만든다는 비판 역시 독자 대중을 철저히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으로, 대중문학의 수용적 측면을 무시하고 대중의 주체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자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어진 의미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문학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독자가 작품을 읽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내포된 작가’ 뿐 아니라 ‘내포된 독자’라는 개념이 서사학의 새로운 개념으로 떠오른 지 오래지 않은가.

2. 대중문화의 헤게모니 이론으로 본 金庸 소설

대중문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좋아하는 문화. 둘째, 고급문화라고 결정된 것 이외의 문화. 셋째, 대량문화. 넷째, ‘민중 the people’으로부터 발생하는 문화. 다섯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

20) J. G. Cawelti, 〈도식성과 현실도피와 문화〉,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 대중예술 비평을 위하여》(서울, 동연, 1994), 87쪽.

계모니 개념과 관련된 것 등이다.²¹⁾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헤게모니 개념에 의한 대중문화의 개념은 金庸 소설의 혁명성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람시에 의하면 헤게모니란 사회의 지배계층들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리더십'의 과정을 통해 피지배 계층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헤게모니 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중문화는 '사회의 피지배계층의 저항력과 지배계층의 통합력 사이의 투쟁의 장'이다. 대중문화는 '이 둘 사이의 교환이 일어나는 영역'이며, 이 영역은 '저항과 통합'으로 표현된다.²²⁾ 즉 이는 '합병과 저항 사이의 알력, 즉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보편화시키려는 시도와 피지배층의 저항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문화적 교류와 협상(타협적 평형)에 의해 구성된 영역'으로 해석되는 것이다.²³⁾

헤게모니 이론에서 보이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투쟁, 문화적 교류와 협상 등은 아문학과 속문학에 적용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대중문화에도 정치권력처럼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합병, 저항, 통합, 투쟁 등과 같은 정치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金庸의 소설이 대륙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해석으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嚴家炎교수가 金庸의 소설을 접하게 된 과정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인 요소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는 본고의 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嚴家炎은 자신의 金庸研究書《金庸小說論稿》의〈序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錢理群 교수는 자신이 金庸의 소설을 접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내가 金庸을 '열독'하게 된 것은 상당히 피동적인 것(밑줄 인용자)으로 학생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때 저는 北京大學 중문과 1981년 입학생들에게 '중국 현대문학사'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와 가까이 지내던 한 학생이 제게

21) John Storey,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서울, 현실문화연구, 1993), 18-31쪽 참조. 그 외에 포스트모던식 정의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정의가 있다.
22)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27쪽.
23)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174쪽.

물었습니다: “선생님 金庸이라는 작가 아십니까?” 저는 분명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농반진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金庸을 읽지 않으시면 현대문학을 완전하게 이해하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동급생들(특히 남학생들)이金庸에게 빠져서, 海澱의 서점에서金庸의 소설을 고가에 차례로 빌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들金庸의 소설이 제가 수업 중에 소개하는 현대의 작품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그것도 제 학생이) 저 같은 전문 연구자마저도 모르는金庸이라는 작가의 문학사상의 지위 문제를 제게 제기한 거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기왕 그러도 많은 젊은이들 모두가 좋아한다면, 선생이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그러므로 제가金庸의 소설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까지 하게 된 것은 모두 젊은 학생들의 추동과 재촉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밑줄 인용자)나중에는金庸 소설 연구라는 과정을 개설하지 않으면 문학사 연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젊은 학생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까지 했습니다. 24)

위의 인용문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 있다. 첫째,金庸의 소설이 이미 80년대에 중국의 대학생 독자들에게(최소한) 광범위하고 열렬하게 환영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金庸의 소설이 젊은 독자들에게 환영 받은 지 10여년이 지나서야 정식 수업 과목이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 중국현대문학 연구계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嚴家炎、錢理群 두 교수가金庸의 소설을 접

24) 「錢理群教授曾在一篇文章中說過他讀金庸小說的緣由:

說起來我對金庸的“閱讀”是相當被動的,可以說是學生影響的結果。那時我正在給1981屆北京大學中文系的學生講“中國現代文學史”。有一天一個和我經常往來的學生跑來問我:“老師,有一個作家叫金庸,你知道嗎?”我確實第一次聽說這個名字。於是這位學生半開玩笑、半挑戰性地對我說:“你不讀金庸的作品,你就不能說完全了解了現代文學。”他並告訴我,幾乎全班同學(特別是男同學)都迷上了金庸,輪流到海澱一個書攤用高價租金庸小說看,而且一致公認,金庸的作品比我在課堂上介紹的許多現代作品要有意思得多。這是第一次有人(而且是我的學生)向我提出金庸這樣一個像我這樣的專業研究者都不知道的作家的文學史地位問題,我確實大吃了一驚……

類似的情況我也同樣遇到過,而且還不止一次。“既然那麼多年輕人都喜歡讀,做老師的完全不了解似乎說不過去。”……所以我之閱讀、思考乃至研究金庸小說,可以說都在青年朋友的推動、督促之下,後來竟至漸漸覺得不開設金庸小說研究課程,既有愧於文學史研究者的責任,也辜負了年輕朋友的期待。」(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 2-3쪽.

하는 과정이 모두 피동적이었던 것이다. 즉 이들이 金庸의 소설을 접하게 되는 과정은 다른 작가의 작품 즉 아문학의 작품과는 다른 것이다. 현대문학 연구자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들은 문화의 지배층이었다. 그들은 현대문학의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여 독자들에게 해설, 비평하는 것 즉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金庸의 소설은 이들이 발굴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열렬히 환영받은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대중들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다. 이는 대중이 먼저 접하고 인정한 작품을 연구자들이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으로서, 피지배층의 이해관계가 지배층에게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문화의 권력이 대중에게로 넘어갔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대중문학, 대중문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문학이건 문화이건 대중이 주가 되는 시대, 대중이 원하는 것이 주가 되는 시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전이야말로 金庸 소설로 인해 발생한 문학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IV. 결론 — 문학혁명의 실제 의미

金庸 소설에 관한 비평의 과학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 아문학 진영의 자기반성, 속문학의 가치 재발견, 문화 권력의 전이 상징, 대중문화 시대의 개막 등등 모두가 金庸의 소설이 또 하나의 문학혁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金庸의 소설을 둘러싸고 진행된 속아문학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을 소극적인 교화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문학의 최후 완성자로(내포 독자)서 적극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 대중에게 위안과 경이, 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품의 가치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문학 본래의 가치 아니었던가.

다른 한편, 김용과 王朔의 논쟁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속문학 진영 내의 논쟁이 문단의 주요 화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속문학의 주도적 지위를 상징하는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영상의 시대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20세기 말의 ‘金庸熱’을 돌아보면 그것이 아마도 문학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최후의 영광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參考文獻】

- Quintin Hoare & Geoffrey Nowell-Smith(eds.),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 Wishart, 1971.
- John Storey, 박모 譯,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3.
- 박성봉 編譯, 《대중예술의 이론들 — 대중예술 비평을 위하여》, 서울, 동연, 1994.
- 김양수 편역, 《중국 신시기문학 입문》, 서울, 토마토, 1995.
- 조성면,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서울, 소명출판사, 2002.
- 嚴家炎, 《金庸小說論稿》,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範伯群, 《通俗文學十五講》,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 嚴家炎, 《金庸小說增論稿(增訂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 陳志明, 《金庸論爭實錄(上、下)》,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9.
- 陳志明, 《金庸論爭實錄續編(上、下)》,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9.
- 陳思和·李平 主編, 《二十世紀中國文學精品—當代文學100篇》, 上海, 學林出版社, 1999.
- 嚴家炎, 〈一場悄悄的文學革命—在查良鏞獲北京大學名譽教授儀式上的賀詞〉: 《通俗文學評論》, 1997年第1期“金庸專號”.
- 錢理群, 〈金庸的出現引起的文學史思考〉: 《通俗文學評論》1998年 第3期.
- 陳 墨, 〈金庸小說與二十世紀中國文學〉: 《通俗文學評論》1998年 第3期.
- 劉再復, 〈金庸小說在二十世紀中國文學史上的地位〉: 《當代作家評論》1998年 第5期.
- 陳平原, 〈超越“雅俗”—金庸的成功及武俠小說的出路〉: 《當代作家評論》1998年 第5期.
- 丁 進, 〈中國大陸金庸研究述評(1985~2003)〉: 《江西社會科學》2004. 5.
- 趙科印, 〈“權威批評話語”在通俗文學批評中的尷尬〉: 《甘肅社會科學》, 2006年 第5期.

【中文提要】

俗文學體裁之一——武俠小說從80年代開始在中國大陸流行並受到廣泛歡

迎，其中金庸小說是武俠小說的代表。嚴家炎教授認為金庸的小說把武俠小說推上了“文學的殿堂”，這本身是一場“悄悄進行”的革命。但是，筆者認為這一評價只是認可金庸小說達到雅文學的水平，而“一場‘悄悄進行’的革命”的實際意義並不在此。

其實際意義首先在於文化界的變化。金庸小說引起雅文學陣營的反省，其結果是對整個二十世紀中國文學的重新思考，對針對金庸的批評進行反省，以及俗文學陣營的自信感的恢復等等現象的發生。

其次是金庸小說引起整個文化界的權力的主體的更換。金庸小說受到歡迎的理由不僅在於小說本身的優秀性，更在於它符合大眾的需要，這一點筆者通過韓國的例子說明這意味著大眾的要求被積極地反映到文化界。此外，作為雅文學陣營的批評權威嚴家炎教授被動地接受了金庸小說，筆者以此為例證明文化的權力從知識精英陣營轉移到了大眾這一點。

以金庸小說為起點，中國文化界迎來由大眾主導、以大眾為主體的新時代，這才是“一場‘悄悄進行’的革命”的實際意義。

【主題語】

俗文學，雅文學，金庸小說，文學革命，霸權理論，大眾文化時代

투고일: 2012. 7. 15 / 심사일: 2012. 7. 20~8. 5 / 게재확정일: 2012. 8. 10